

정의선 >>04  
글로벌 판매 빅3 '우뚱'  
미래 모빌리티 가속페달



최윤호 >>18  
"유럽 명문대 석박사  
삼성SDI와 함께하자"



## K뷰티 바람 탄 K제약 미용의료기 시장 노크

2030년 글로벌 시장 200조 육박 전망  
생산 기업과 MOU·M&A 등 잇따라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미용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내 미용 시장은 물론, 거세진 K-뷰티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미용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업 다각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피부 리프팅, 타이팅, 지방 감소 등 성형수술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어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178억 달러(약 23조5000억원)에서 2030년 1457억 달러(약 192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동화약품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하이로닉 주식 57.8% 인수를 통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하이로닉은 고강도 집중 초음파(HIFU), 고주파(RF)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제조·판

매 기업이다. 현재 병원용, 개인용 의료 미용 기기 등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구주 838만여주와 신주 558만여주 등을 모두 1600억원 규모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실사 등을 거쳐 12월 중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7월 성우전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더마 코스메틱과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웰스케어 분야 중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각 제약·바이오와 전자부품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인 더마 코스메틱과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동국제약도 5월 전자 회사 위드닉스를 인수했다. 2003년 설립된 위드닉스는 미용 기기 개발·생산·유통과 중소형 가전제품 생산·유통 기업으로 미용 기기 '세이스킨'과 식기 살균건조기 '하임세프'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이번 위드닉스 인수가 위탁생산 체제로 시작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사의 미용 기기 사업이 R&D와 생산 역량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 전세·정책대출도 DSR 규제 금융당국, 산출 정교화 주문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능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확대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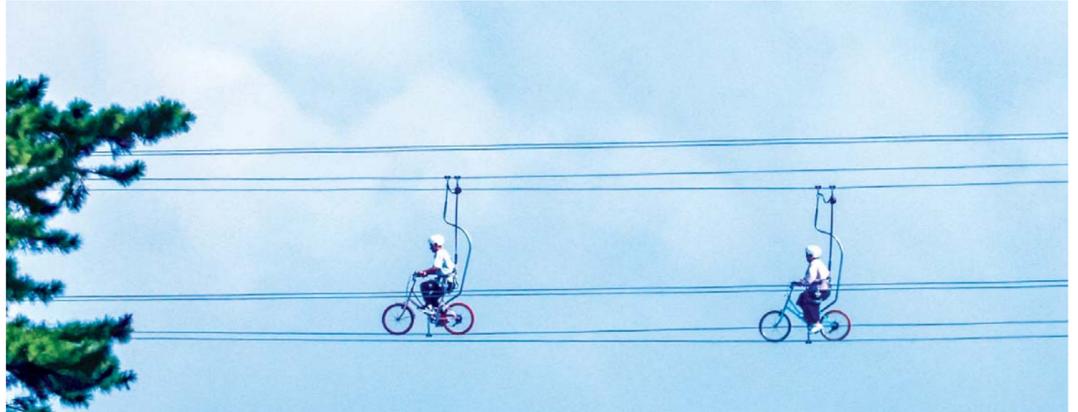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바탕목 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 Market Index   | 주간                 |
|----------------|--------------------|
| 코스피            | 2596.91 ↑ +27.20   |
| 코스닥            | 770.98 ↑ +2.00     |
| 환율(원·달러)       | 1349.50 ↑ +15.80   |
| 국고채금리(1년물, 연%) | 2.947 ↑ +0.123     |
| 일본닛케이          | 39605.80 ↑ +970.18 |
| 상하이지수          | 3217.74 ↓ -118.76  |



파란 가을 하늘 가로지르며... 자전거 타는 풍경

13일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 바다 위에서 관광객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늘자전거를 타고 연합뉴스

## 외국인 근로자 '떼뚜기 이직' 대책 시급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만 취업 가능  
의사소통·적응 등 힘들어 이탈 가속  
"장기근속 근로자가 추천한 외국인  
원하는 곳 취업 허용 등 제도 바꿔야"

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 정부가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회사 또는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을 추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한해서 'E-9 비자 발급 간소화' 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중소제조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일하면 금방 업무에 적응해서 사업장이탈 방지, 신분 보장(불법체류 방지) 등이 수월하다"며 "생소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언어 능력 제

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장기근속'을 위해 이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무작위(랜덤)로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성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부족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무작위로 사업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대문 기자 danjung638@viva100.com

## '실적 찬바람' 롯데 유통부문 인사 칼바람 예고

비상경영 체제, 인적 쇄신 불가피  
신세계·현대백은 '조직안정' 방침

유통업계의 임원 인사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유통업계는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력 감축,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길어진 불황이 유통가의 연말 정기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이달 중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정용진 회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정기 임원인사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에는 9월에 조기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계열사대표의 40%가 물갈이되면서 '신상필벌'적 성격이 짙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신세계그룹이 올리는 지난해와 같은 신상필벌 성격보다 조직 안정을 도모하는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계열사 수장이 바뀐데다 정 회장이 사업성과에 따른 수시 인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다음달 중순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9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현대에프지홀딩스를 만들고, 장호진 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 또한 백화점, 홈쇼핑의 수장으로 정지영 대표와 한광영 대표로 각각 바꿨다. 통상

조직 안정을 중요시하는 현대백화점그룹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가장 늦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점치고 있다. 롯데는 실적 악화로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올 초 신동빈 회장이 부진한 사업은 접겠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롯데가 인적 쇄신 성격이 강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롯데지주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의 임원 평가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 8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수규모도 20%로 확대됩니다.**

**법원이 허용한 공개매수는 적법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사주 취득 후 소각만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회사 공개매수는 **KB증권 온라인 및 지점방문**과 **미래에셋증권 지점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